

한국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여학교, 박문여자중고등학교

학교 명(名)이 논어 박학어문(博學於文)에서 온 것으로 학문을 널리 배워 도에 이르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에서 비롯하였다는 박문여자중고등학교는 1940년 인천 소화고등여학교로 개교하였다.

설립자 고(故) 석계(石溪) 장석우 선생은 1870년 2월 4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출생하여, 젊은 시절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사업에 성공하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하였다. 장석우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신문명을 배우게 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민족의 과제라고 여겼고, 더욱이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일제의 교육침략정책이 극에 달하던 시대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1940년 4월 27일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재단이사장은 일본인으로 하며 설립자는 이사로 하고 학생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각각 50%로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5월 8일 현재의 송림초등학교 자리를 일부 임대하여 개교하였다. 12월 11일 부평동 산립 만 평을 대부받아 교사를 신축하였고 1941년 11월 7일 이전하였다. 학생들은 모처럼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였기에 세태에 아랑곳없이 희망과 기쁨에 넘쳤다. 그러나 당시의 수업은 국어 시간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 시간, 가사 시간은 군복 만드는 재봉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에서 한국말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조병창에 동원되어 일을 해야했다. 이렇게 유지되던 수업도 1945년 학교를 야전병원으로 이용하게 되어 항동 가교사로 이전하였다가 8월 15일 해방으로 다시 본교사로 이전했다. 한편 해방 후 일본인 이사장이 자동 사임되자 장석우의 장남 장관순이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장관순은 뜻한바가 있어 담동본당 주임 임종국 신부에게 학교 인수를 제안하였고, 서울대 교구장 노기남 대주교가 학교를 양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학교명을 ‘인천 박문 여자 중학교’로 개칭하면서 종교적 성향을 띤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다.

1945년 ‘인천 박문여자 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한공열 신부가 취임했는데, 당시에는 미군이 학교 본관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학생들

은 후관 일부에서 수업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 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부산시 보수공원에 가교사를 빌어 피난학교로 운영하다가 9.28 수복으로 담동 3번지 박문초등학교에 개교하여 부산 분교와 이원적 운영을 했다. 1951년 교육법 개정으로 중·고 병설 인가를 받았는데 이때 부평의 본 교사는 경기도 경찰국이 사용 중이었으므로 송림동 산 10-15번지에 교사를 신축하였다. 박문여자중고등학교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대변하듯 1956년 송림교사 신축 전까지 무려 8번의 이전을 거쳤다.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에 대한 기쁨은 더욱 컸다. 이후 1959년에서 1962년까지 학교경영을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에 이관하였다가 1962년에서 1975년까지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1975년부터 지금까지는 인천교구 천주교재단으로 국제교육수도회 노틀담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다. ‘건강하고 명랑한 여성,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성,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여성’ 등을 교육이념으로 설립자 장석우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과수업과 함께 학생미사, 피정, 기도 생활을 지도하며 가톨릭 학교로서의 명성을 빛내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를 반성했다.

공의회는 교황이 소집하는 세계주교회의인데, 천주교회의 2000년 역사 안에서 21번 열렸다. 서기 325년 니체아에서 열린 1차 니체아 공의회가 첫 번째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1962-65년에 바티칸에서 4년간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바티칸은 로마시 안에 있는 작은 지역(0.44km2)의 이름이며 바티칸 시국의 영토이다. 그 안에 베드로 대성전과 교황청이 있다. 공의회는 어느 시대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교리를 정리하여 확정하고, 전례와 생활에 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며 또한 가톨릭교회가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나라의 주교님들이 처음으로 참여했던 공의회이다. 이 공의회는 16개의 문서를 발표했는데,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문이다. 그 문서를 읽어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과거에 대하여 네 가지를 반성하고 있다.

첫 번째 반성은 천주교회에서 11세기에 희랍정

교회와 16세기에 개신교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짐의 책임 일부가 천주교회에도 있는 것이며(3항), “우리는 하느님과 갈라진 형제들에게 겸손되어 용서를 청하는 바이다.”(7항)라고 하면서 갈라지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일치운동에 힘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용서를 청했다. 두 번째 반성은 1633년에 있었던 갈릴레오 재판에 관한 것이다. <사목헌장>은 “과학의 정당한 자율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대립과 논쟁을 일으켜 신앙과 과학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정신 상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36항)라고 반성했다. 세 번째 반성은 종교자유의 억압에 대한 것이다.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은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인데, 교회의 과거에는 “복음 정신에 덜 부합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것조차 있었다.”(12항)라고 말했다. 네 번째 반성은 정의실천 부족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항상 한국 천주교회의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여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공의회에 참여한 주교님들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많이 살던 유럽에서 19세기부터 왜 무신론이 발생하고 확산되었는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였다. <사목헌장>은 무신론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원인 중에는 종교에 대한 비판적 반동,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향이 포함되어 있다.”(19항)라고 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하는 신자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생활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통제로 부인하고 배척하는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성숙한 신앙이 “신자들의 속세 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정의와 사랑을, 특히 빈곤한 사람에게 실천함으로써 활력을 부여 주어야 한다.”(21항)고 가르쳤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와 하느님에 대한 반항과 부정과 거부는 부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과 정의실천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하느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다.

오경환 프란치스코 신부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교를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 (토너스 주교)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토너스 주교)가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말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 당 소 식

인천박문여고 국제반 학생들의 어학 연수를 위한 KW한인천주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장 조현순 마가리타 수녀님
인솔 장복순 엘리사벳 선생님

● 교우주소록 최종 점검 안내

이미 나누어드린 교우주소록 양식을 오늘까지 사목회 총무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유치부가 자리를 잡았고, 7~ 8월 중에는 중고등부(7학년 ~12학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도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부가 구성되어 매월 첫 주 미사 후 모임을 갖습니다. 청년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노재현(아킬레오) ☎ 519 590 4493
노동원(라자로) ☎ 519 220 1503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을 위해 ST. ANTHONY DANIEL 성당 주최로 우리 본당 성가대와 EASTWOOD HIGH SCHOOL 합창단이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13일 (금) 7시 30분

함께하실 교우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연습은 미사 후 대성전에서 1시간씩 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문혜라(크리스티나) ☎ 519 208 0565

● 견진성사 신청안내

오는 9월 20일 본당 창립기념미사 때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교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오니 구역장들께서는 견진 대상자를 파악해 주시고, 총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박재영(바오로) ☎ 519 747 4981

● 소성당, 교육관 출입문 이용 안내

소성당에서 하느님과 시간을 원하시는 교우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가실 때는 소등, 뒷정리, 출입문 잠금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패스워드는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관리분과장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 8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1구역입니다.

▶ 9월 : 워털루 3구역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워털루 1구역 : 8월

▶ 워털루 2구역 9월

● 교구장 토너스 주교님의 서임 25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예물로 드린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로고스회(성경모임)는 요청에 의해 7월과 8월은 쉽니다.

● 바뇌 성모의 기도회

7월 31일 (금) 오후 8시 미사 후

● 평일미사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참례하면 좋겠습니다.)

●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악수, 주님의 기도 때 손을 잡는 것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인사로 대신하십시오. 성당에 들어올 때 손소독, 친교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으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 ♥
2009년 7 월 12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40.00
교 무 금 : \$ 170.00 188(70) 219(50) 235(50)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성모동산 누계 : \$ 1050.00)
합 계 : \$ 810.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2009-31호

2009. 7. 19.

연중 제 16일

미 사 전 레

해 설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성 가

입 당 (54) 주님은 나의 목자
봉 헌 (340) 봉헌
성 체 (500) 평화의 하느님
퇴 장 (56) 목자를 따라서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영성체송 당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독		서	
7월 19일	김용하	7월 19일	김희선
7월 26일	노재현	7월 26일	노정은
8월 2일	고덕근	8월 2일	고세형

봉		헌	
7월 19일	김근효	7월 19일	김순희
7월 26일	김용하	7월 26일	김희선
8월 2일	노재현	8월 2일	노정은

복		사	
7월 19일	안아람	7월 19일	노승범
7월 26일	최예슬	7월 26일	강수현
8월 2일	안아람	8월 2일	호 동

◎ 7월 ~ 8월 친교식사는 쉽니다.◎